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발명교실

부산 동래 발명교실을 찾아서

김규호 발명기자
부산상당초등학교 3학년

지난 4월 16일 제29회 부산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가 끝났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초 · 중 · 고등학생작품 300여점이 출품되었습니다. 나도 학습용품에' 쉽게 하는 열전도 실험장치 '를 출품하였고 즐겁고 신나게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발명 대회장에서 반가운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1학년 때부터 발명공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입니다. 부산 동래발명교실 정경순 선생님, 거제초등학교 전순련 선생님, 이경원선생님, 광안초등학교장종길선생님, 그리고 우리아빠이자나의발명선생님 인남부발명교실김준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은나를비롯한 여러 형님, 누나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발명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동래발명교실 정경순선생님은언제라도우리가 찾아가면 반갑게맞아주시고 자상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로 발명공부를 학교 수업을 마치고저녁때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방학 때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발표 연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 주시는 선생님들이 고맙고 좋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남부 발명교실에서 작품을 만들고, 동래 발명교실에서는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동래 발명교실의 정경순 선생님은 발명교육에 있어서정말대단한 분입니다. 아빠도 정경순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명대회 전국대회에서 수도없이많은 학생들을 지도하셨고, 발명이라는 글자만 보여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발명교실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학생들과 어머니들 발명 공부를 도와주시고, 발명 대회와 행사도 많이하시면서언제나 바쁘시게일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정말많은상을받으셨는데, 2년전에는올해의과학교사상도 받으셨습니다.

동래발명교실에서정경순선생님을만나발명에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규호 기자 :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발명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께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정경순 선생님 : 규호야 반갑구나. 뭐가 그리 궁금하니?

김규호 기자 : 선생님은 언제부터 발명을 시작했어요?

정경순 선생님 : 선생님이 발명을 시작한 건 10년 전 명지초등학교에 근무할 때부터랍니다. 물론 학생들과함께한 발명을말하지요. 그런데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잘하시는 선생님들께 배우기도 한 것은 13년째 된답니다.

김규호 기자 : 발명교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정경순 선생님 : 발명교실에서는 1)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발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2) 발명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3) 발명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료를 마련해서 항상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4) 발명 관련된 다양한 교육자료와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누구든 언제든 필요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며, 5) 다양한 발명품들을 전시해서 이곳에 오면 볼 수 있도록 하고, 6) 발명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답니다.

김규호 기자 : 선생님, 발명은 왜 해야 되요? 우리가 발명 공부를 하면 어떤 것이 좋아요?

정경순선생님: 지구상에 존재하는자연을 제외한우리주변의 모든 사물은모두발명품이랍니다. 이런발명품들은 항상 불편함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답니다. 따라서 발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명을통해인간은보다나은생활과 삶을 만들어가기때문에 발명을하는것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 보다행복해 지기위해 발명을 한다고할 수 있지요.

그래서발명공부는무엇보다도나와주변사람들의불편함이무엇이지를찾아내는눈을가지는데서비롯되며, 이것은 인간과 자연 환경과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을 때 가능하답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선생님은 발명은인간과 자연, 환경과사물을사랑하는마음을 길러야 보다 나은 인간생활, 자연환경, 편리한 물건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가족들은매일만나며, 가장자주만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이랍니다. 이처럼 우리주변에 있는 자연물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와 자주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로 발명공부의 시작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발명체험이기도 하답니다.

김규호 기자 : 선생님은 발명 공부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과 사람이 누구에요?

정경순 선생님 : 선생님은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이 발명을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학생이며, 그학생이 만든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페달장치랍니다. 발명을 시작도 하지 못하게 했던 가족들 모두가 결국에는 한마음으로 뭉쳐 전국대회까지 갔고, 할머니를 비롯해 온 식구가 대전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가장 생생하답니다.

김규호 기자 : 저는 매일 발명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도 발명 생각을 하세요?

정경순선생님 : 선생님은 발명품보다는부딪히는일들을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 보는 습관과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 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실천해서 선생님에게 아주 쉬운 일로 만드는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발명을 비롯해서 현재는 답이 없지만 반드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많아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발명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한답니다.

김규호 기자 : 창의력 올림피아드도 발명 공부에요? 저는 연극하는 것 같았는데, 올림피아드를 하면 뭐가 좋아요?

정경순 선생님 : 창의력올림피아드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발명입니다. 우선대본도이제까지없던것을 새로 했으니까 대본의 발명이고 사용하는 물건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형태를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발명.

여러분이하는 동작 모두가 자기들만이할 수 있는 새로운것이므로동작의발명. 많은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사이좋게 해가야 하는 방법을 익혔으니 이것도 팀워크 발명. 팀이 만든 의상, 음악, 노래 등등 어느 것 하나발명이 아닌것이없답니다. 즉창의력 올림피아드는 발명의 종합이랍니다.

김규호 기자 : 발명 공부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에요?

정경순선생님 : 처음엔스스로 생각하고실천하고찾아가는 일들이 무척 어려워 힘들어하고 짜증을 많이 냈는 데, 어느 새 그런 아이들이 발명을 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보다 사물이나 생각하는 방법이 독특할 때, 스스로 발명의 과정을 찾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보람 있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즐거운 표정으로 생각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무척 행복하답니다.

김규호기자: 저는발명대회에서대통령상을받는게 꿈이에요. 선생님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정경순 선생님 : 아주 어린 아이들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때 힘들어 하면 옆에서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답니다.

김규호 기자 : 발명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정경순선생님 : 발명공부는여러분의생각을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답니다. 처음에는 물론 주변의 도움을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홀로 우뚝 서기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답니다. 아기가 엄마 손 잡고 걷다가 나중에는 손을 놓아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발명 공부도 처음부터 큰 상을 바란다거나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번에는 내가 몇 걸음을 더 스스로 걸었나 생각하면서 점차 조금씩 좋아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규호도 발명공부를할 때 조금씩걸어 나가 스스로 힘차게 해결해 가려는 마음을 가져 주세요.

김규호 기자 :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